



# 아름다움에는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박항률 회백

맑은 눈과 말을 할 때 가끔은 더듬는 모습이 선하게 다가왔다. 사진쟁이도 어렸을 적 말을 더듬었다. 지금도 더듬지만 화가와는 달리 성년 때다. 법정 스님을 회고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꺼내 보이는 어찌된 '화톳불 피어 놓은' 추억의 자리에서 화가의 눈(目)과 말(言)은 꾸밈이 없었다.

"벽에 그림을 걸어놓으니 오두막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이 표정이 참 좋습니다. 목에 두른 보랏빛 스카프도 잘 어울려요. 봉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눈길에 갈 때마다 말없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듭니다. ... 두런두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내 말뚝이 되어줄 것입니다. 봄이 와서 산에 꽃이 피어 나면 진달래라도 한 아름 꺾어다 우리 봉순이에게 안겨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곁에 봉순이가 있어 내 속들이 한결 풍성해질 것입니다. ... 2003. 2. 17. 法頂 합장."

2002년 박항률 회백 개인전시회에 오신 법정 스님, 까까머리 소년이 그려진 그림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림 속 까까머리 소년과 너무 닮았다. 깜짝 놀란 박 회백은 전시회를 마친 뒤 스님을 쫓 빼어 닮은 그 그림을 스님에게 드렸다. 이때 스님은 우리 맨날 머리 깎고 다니는데 또 까까머리? 난 소녀가 좋더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그려드린 게 봉순이다. "저는 스님이 늘 어려웠어요. 스님 앞에서 말씀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고민 많이 했어요." 평창동 가나아트

센터 아뜰리에서 만난 박항률 회백은 올해 한강을 맞은 이담지 않게 당신 작품 속 소녀보다 더 수줍고 조심스럽다.

### - 사춘누이 그리고 갈래머리 소녀

경제학자였던 아버지 눈으로 보면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대는 소녀 박항률은 이단이었다. 드센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 그림을 못 그리게 되자 공부마저 제쳐두고 만화만 그려대던 소년은 고등학교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만다. 2차로 가면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시험 칠 시기를 놓치고 고향인 김천으로 내려가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눈 밖에 나 쫓겨 간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미술반에 들었다. 과수원이나 논두렁, 강가로 나가서 아스라한 시골정취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으며 그림 그리기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다. 덧붙여 박 회백 그림 깊숙한 곳에 깔려 있는 아릿한 사춘누이와 인연도 시작되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같은 그림 못 그리 겁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춘누이는 중3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애였어요. 문학소녀였던

게 영향으로 시도 깔짜거리기 시작했고, 위안을 많이 받았죠. 제 동무 노릇을 톡톡히 해줬어요."

사춘누이는 척추장애를 앓아 발육이 좋지 않은 탓에 중학교 3학년인데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보일 만큼 조그맣다. 박항률은 누이를 업고 산에 오르고 들로 강가로 나다녔다. 그것도 잠시, 지나치게 자유를 만끽한 탓인가? 그곳에서 한 해 남짓 학교를 다닌 박항률은 병을 얻어 서울로 올라와 두 해 동안 학업을 멈춘다. 공부를 썩 잘했던 누이동생도 서울로 유학 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연이 이어지는데,

"그 병이 아주 처참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개는 고2때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세상 뜨기 전 거의 일주일일 한 번은 같이 있어주곤 했는데, 세상 뜨는 순간까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그림에 슬픈 표정이 있다는데, 아마도 그런 게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다. 그런저런 아픔을 그저 스쳐지나가는 통과이레처럼 여겨 쉬이 잊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릿하고 비릿한 아픔들을 무의식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사하고 삭힌 끝에 두레박으로 물 길어 올리듯

이 애잔하고 애뜻한 그리움으로 풀어내 코끝을 싸하게 만드는 박항률 회백 같은 이가 있다.

"...어쩌면 내 그림 속에/빈번히 등장하는/까까머리 소녀 모습은/아직도 내 마음속을/차가운 정적으로/응시하고 있는 그녀 눈망울에 비친/내 자신일는지 모른다." - 시 '사춘누이' 일부

아버지는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시키지 않느냐?"는 친구와 친지들 설득에 못 이겨 아들을 서울에고 2학년이 편입을 시킨다. "그림 그리는데 애들만 모여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유럽에 다녀오시면서 그 당시 구하기가 힘들었던 모네타리니 화집과 피카소 화집을 사다 주셨어요." 그 모네타리니 화집에 소년 박항률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 한 점. <갈래머리 소녀>다. "천도복숭아 같은 가뭇한 얼굴에 흥조면 붉은 뺨과 붉은 입술, 오흘한 코가 당당하게 앞을 응시하는 눈동자에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단아하게 땅은 갈래머리와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은 애교머리가 푸른 창밖 배경으로 인해 애잔한 슬픔으로 다가오

는 소녀 초상화였다." 박 회백 시집 <그림의 그림자>에 나오는 글이다. 이 갈래머리 소녀가 박항률 운명을 바꿔놓는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야겠어.'

### - 해돋이는 100미터 높아서 봐야 제격

법정 스님과 인연은 어떻게 맺었을까? "96년에 집사람하고 인도여행을 하면서 바라나시를 갔는데, 여행을 하다보면 입에 맞는 음식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중국음식은 웬만하면 입맛에 맞으니 중국 집엘 갔어요. 주인이 방명록에 글을 적으라고 하대요. 적으면서 보니 한글로 '000은 시켜 먹어도 되고, x x x는 한국사람 입맛에 맞지 않으니 시켜 먹지 마시오. 류시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적힌 대로 시켜먹었다니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류시화씨 책에 한참 빠져있을 때였어요. 집사람이 좀 극성맞은 데가 있거든요. 돌아와서 출판사를 통해 류시화씨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만나보니 류시화도 마침 박 회백 그림을 좋아해 포스터 액자를 구해서 안방에다 붙여놓고 있었다. 이렇게 만난 인연. 필연이었을까? 서로 팬임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레 화제가 법정 스님 이야기로 옮겨갔다.

"법정 스님은 화실에 딱 한 번 오셨어요. 길상사 달력 만들 때. 오셔서 '슬라이드 다 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림은 모두 스님이 직접 고르셨어요. 절대미감을 지니셨잖아요. 표지화가 지금 길상사 선열당에 걸린 그림인데요. 스님이 고르신 작품 가운데서 '스님 이걸 표지로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해 드렸어요."

"한 번은 스님이 여행지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해돋이는 100미터 높아서 봐야 제격이라고요. 스님이 좋아하셨던 이 그림도 스님한테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뒤에 그린 겁니다.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이죠."라며 펼친 그림첩. 2004년에 그린 '일몰'이란 제목이 붙은 해님이 그림이다. 화폭 오른쪽 위로 나는 갈래머리와 곧 바다 위로 떨어질 해 그리고 물에 푸른 배에 걸친 노가 어스름하게 내리흐르고, 조그만 외딴 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왼쪽으로 완만하게 드리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우리 전통 그림처럼 트라이앵글 구도를 가진 파스텔화(54x65). 고즈넉한 해님이 풍경으로 여백미가 한껏 드러나는 작품이다. 스스로 빛을 발하려 들지 않고 대상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그 넉넉함이라니. 그림에 취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박 회백 범법을 떠올렸다. '진공(眞空) 참 비움. 스님 발을 묶어둔 까닭을 어렵게 이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움에는 그림고 아쉬움이 따라야 합니다. 덜 채우면 그 빈자리에 생각이 돌아서 시들지 않는 품격이 감동합니다." 법정 스님이 2007년 가을 범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위대한 예술가 배후에는 드러나지 않는 따뜻한 가슴이 발쳐 주고 있습니다. 박 회백이랑 차 한 잔 드시고요." 2005년 정초 스님이 박 회백 그림 무덤지 보살에게 보낸 연하편지다. 그림을 그리는데 내외를 향한 각별한 스님 사랑이 흡신 물어났다.

### -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박 회백이 새를 그리기 시작한 건 대학 다닐 때부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인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빛 살림

#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골반 척추 복부 근육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뱃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매장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